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문준식(세계일보 사회부 차장)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건강세상' 비전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내놓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72세로 끌어 올리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5년간 3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한 시간을 뺀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보다 중요한 지표로 인용된다. 또한 금연, 암 관리, 노인 보건 등 주요 건강지표와 세부추진사업 등을 확충했으며, 구체적인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 등을 포괄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수명을 2003년 67.8세에서 2010년 72세로 끌어 올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

-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 암을 포함한 위험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질병 관리
- 노인

과 근로자 보건 등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건강환경 조성 등 4개 중점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건강수명은 2002년 66세에서 2003년 67.8세로 늘었으며, 남자는 64.8세, 여자는 70.8세로 추산된다. 2010년 목표는 전체 건강수명 평균은 72세, 남자는 69.7세, 여자는 74.2세로 정해졌다.

흡연율은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2002년 남자 61.8%, 여자 5.4%에서 올해 각각 50.3%와 3.1%로, 2010년에는 30%와 4.0%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위험 수준의 음주자 비율은 2002년 남자 17.4%, 여자 1.2%에서 2010년에는 남자 13.0%, 여자 2.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5대 암(위·간·폐·유방·자궁)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40.2%에서 2010년 60%로 높인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증진 사업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체계와 통계지표 등을 마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예산

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올해 306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2010년까지 관련 예산을 순차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분명 5년 후 국민건강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된 건강증진종합계획은 신건강증진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확대된 건강증진사업 분야를 반영해 국가관리 대상 질병영역 등을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주요 건강지표 내용은 2002년 계획수립 때보다 다소 후퇴한 경향을 보인다. 물론 지난 3년간 사회환경적 여건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당초 계획 수립때 면밀한 검토없이 의욕만 앞세운 결

과가 아닌지 우려된다. 건강수명의 경우 당초 목표 75.1세에서 72.0세로 낮춰 졌고,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7 l에서 8.4 l로 오히려 높아졌다. 알코올 소비량은 2002년 8.7 l에서 지난해 평가 때 9.3 l로 늘어나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다.

이 종합계획은 담뱃값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어 담뱃값 추가 인상이 지연될 경우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가 수정된 건강증진종합계획을 원안대로 달성하려면,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야한다. 복지부의 분발을 기대한다. 